『신앙과 학문』. 16(4). 223-244.

사랑이 견인하는 법과 제도*

한 철**

논문초록

일반적으로 법학적인 논의공간에서 사랑과 법의 연관성을 다루는 연구는 낯설게 생각되는 듯하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법률가들이 붙잡고 씨름해온 문제들의 본질에는 사랑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궁극적으로 법의 목적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사랑은 그곳으로 인도하는 로드맵 역할을 한다. 사랑의 문제를 배제하고 추론과 분석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언제나 공정하거나 정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과 사랑의 융합, 인간이 고안해 낸 법과 법에 도전을 가하고 심지어 법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영감의 결합이 필요하다. 법을 파생적인 규율, 즉 사랑으로부터 유래된 규율로 이해하면 법적 환경 전체에 걸쳐서 정의의 수준이 고양될 것이다. 법은 정의사회의 실현을 위한 도구이다. 법에 대해 사랑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취한다면 우리 사회는 실질적으로 정의로운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법을 만드는 열쇠는 사랑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개방적이고 동정심을 가진 관대한 마음이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심과 건강한 삶에 대한 접근권의 부여를 요구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노출되는 것에 무관심할 수 없게 만들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동정의 마음은 지구환경을 기후변화의 충격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파생된 법에 의해 이웃사랑의 제도가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주제어: 사랑, 정의, 법, 에너지, 동정심

---

* 이 논문은 2011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1년도 봄에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된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기초로 했음.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1년 10월 31일 접수, 12월 13일 수정, 12월 23일 게재확정

I. 서론

뤽 베송(Luc Besson) 감독은 그가 제작한 영화, '제5원소'(The Fifth Element)의 마지막 장면에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구원의 중심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SF 엔터테인먼트 물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결말, 즉 사랑이 바로 온 우주 에너지의 최종 콘트롤러라고 하는 설정으로 관객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근래에 사랑을 노래한 어떤 이는 '너는 나의 에너지'라는 노래말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인간 사회의 각종 드라마나 노래 등에서 사랑 이야기를 제거한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인류 역사 전체가 사랑 이야기요, 인류 사회를 지탱해 온 기초가 사랑이라는 에너지에 있다고 한들 지나치다 할 수 있겠는가? 법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사랑에 기반한다고 볼 때, 법과 사랑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짐작케 한다.

예수께서도 어떤 점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셨다. 율법 중에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묻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모든 율법의 중심원리가 사랑이라고 설파하신 것이다.[1] 바울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이 없다고 단언한다.[2] 이러한 언명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를 목표로 하는 실정법의 핵심원리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웃들은 모두 불행한데 자신만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웃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의 기반임을 인정한다면 이웃사랑의 원리가 공동체의 존재의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법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답하시고, 바울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법과 사랑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담론의 하나가 되어 왔다. 루터(Martin Luther)도 '세속권력에 대한 복종의 한계'를 논하는 글에서 법과

1) 마태복음 22:35-40.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2) 고린도전서 13:1-3.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관계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논의를 전개했다(Luther, 1985: 79-80).[3] 틸리히(Paul Tillich)도 '사랑・힘・정의'를 다룬 그의 저서에서 사랑, 힘, 정의의 문제가 인간학, 심리학, 사회학의 결정적 문제이며, 윤리학과 법학의 중심과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연구가 설사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 연구는 의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Tillich, 1980: 9-10).[4]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학적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법과 사랑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결과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법학자들의 논의 공간에서 법과 사랑은 전혀 무관한 별개의 개념인 듯 보인다. 법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제도화 된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서운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를 목도하기가 어렵지도 않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법률가들이 붙잡고 씨름하는 문제의 근원에 사랑이 자리잡고 있다.[5] 에너지가 넘치는 신성한 사랑이야말로 법이 기초로 하여야 하는 바로 그 근원이어야 한다(Greenlee, 1995-1996: 257; Blomquist, 2003: 616).[6] 궁극적으로 법의 목적은 정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사랑은 인류를 그

3) "만일 온 세상이 참된 기독교인들, 말하자면 진실한 신자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 법률은 별다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실 기독교인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이 계셔서 그가 어떤 사람에게도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시며, 또 서로 사랑하며 어떤 사람으로부터 불의를 당해도 그것을 견디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 법률이 굳이 있어야만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 의로운 사람은 그 스스로 법률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정의를 행할 줄 알기 때문이다."

4) "사랑, 힘, 정의의 세 개념을 단계적으로 연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학과 철학의 양 분야에서 건설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없다. … 이 세 개념이 특수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직 없다. … 이 일은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알게 되는 모든 개념의 근본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5) 에너지가 넘치는 능력으로서의 '사랑'이라는 용어는 사랑(spiritual love)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아가페(agape)와 유사한 것이다. http://www.dictionary.com(검색일 2011.10.25) (spiritual terms의 아가페를 정의하여 성관계가 없는 사람 상호간의 이기심이 없는 사랑과 관련하여 정의한다). Agape International Spiritual Center, About Agape, http://www. agapelive.com/index.php?anchor=about (검색일 2011.10.25) (아가페를 무조건적 사랑(unconditional love)으로 정의한다). 그리스어가 로맨틱한 사랑(eros)과 형제간의 사랑(philia)이라는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영어는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The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Philosophy of Love, http://www.iep.utm.edu/l/love.htm.(검색일 2011.10.25)

6) 영성(Spirituality)은 종교(religion)와는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영성은 신과 소통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지만, 종교는 집단에 기반한 것이다. 기독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은 조직된 종교의 예에 해당한다.

곳으로 인도하는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된다. 법률이 정의와 평등의 목표와 합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에너지가 넘치며 가슴을 고동치게 하는 힘인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 법학자들의 논의의 공간에 있어 법과 사랑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가 제자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 대신 '주어진 사실패턴이 과거에 결정된 다른 것과의 동일성 또는 차별성을 판단하는' 논리, 추론, 분석 등에 논의의 초점이 놓여있다. 논리, 추론, 분석 등이 유익한 것이기는 하지만,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방법만으로 인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적 사고방식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Savoy, 1985: 812).[7] 추론과 분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언제나 공정하거나 정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부 법률들은 제한된 부류의 개인에게만 일정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념에 기초되어 있다.[8] 또한 사람들에 대해 자기의 문제를 단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법률도 있다.[9]

인간이 만들어 낸 법과 법에 도전을 가하고 심지어 법을 바꾸어놓을 수 있는 에너지의 결합이 필요하다. 법을 파생적인 규율, 즉 사랑으로부터 유래된 규율로 보면 법적 환경 전체에 걸쳐서 정의가 고양될 것이다. 그러므로 에너지가 넘치고 가슴을 고동치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으로서의 사랑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나아가서 구체적인 법제도를 검토하면서, 사랑이 이들 법을 이끄는 추동력이 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랑의 힘

사랑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 말의 정서적인 힘이 무시된 적은 없다. 사랑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온정과 열정, 행복과 완성감이 나타난다. 사랑의 근본적인 의미는 규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요, 사랑의 여러 성질과 여러

---

7) 정의하기 어려운 평등의 이상에 대한 우리의 추구가 결국은 도덕적 및 영적 열망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한다.

8) 예를 들면 게이결혼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혼인이 이성의 배타적 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또는 동성 커플들도 결혼식을 통해 함께 결합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고 있다.

9) 용이하게 감축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배출이 이러한 사례이다.

표현을 통해 묘사될 수 있을 뿐이며 어떤 의도나 요구가 아니라, 발생이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정서적인 상태이다. 그런데 사랑과 힘의 관계를 생각할 때 흔히 사랑이란 힘의 단념(resigination of power)이며, 힘은 사랑의 부정(denial of love)으로 생각하기 쉽다(Tillich, 1980: 11). 사랑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해되고 힘이 강제적인 측면에서 이해되는 한 이러한 해석은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강제력을 힘과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랑과 힘이 마주친 데서 생기는 사회윤리 속에 있는 문제들은 중요한 것들이다. 힘이 불신으로 보여지고, 사랑이 감정적이고 윤리적인 성질로 대치되는 한 건전한 사회윤리는 형성될 수 없다. 힘의 구조 속에 사랑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힘의 요소를 무시한 사랑은 무질서한 양보의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것을 전제로 건설적인 사회윤리가 논의될 수 있다(Tillich, 1980: 19-21).

힘과 사랑의 궁극적 일치의 문제에 대해 루터만큼 절감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그는 고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윤리와 절대적 힘에 의해 수행되는 고도의 실제적인 정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제력에 대해 사랑의 이질적 작용(strange work of love)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달콤한 것, 자기 양보 및 자비 같은 것은 사랑의 본질적 작용에 해당하고, 쓴 것, 죽이는 것, 정죄 등은 사랑의 이질적 작용이라고 했다. 사랑은 비난이나 처벌같은 사랑의 비본질적 작용을 통해 사랑이 수행될 수 있도록 터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과 반대되는 것을 파괴하기 위해 사랑은 힘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은 사람 속에서 사랑을 거역하는 작용을 파괴함으로써 그 사람을 구하고 완성시킨다. 그러므로 재결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에 거슬리는 것이다.[10]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계였다(창세기 1:31).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피조세계는 훼손되었다. 물질세계와 생물세계에도 큰 영향을

10) 이러한 루터의 이론에 대해 Tillich는 비판한다. "사랑의 이질적 작용 즉 힘의 강제적 요소가 사랑의 이질적 요소가 되는 동시에 사랑의 비극적 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지 못한 것이다. … 사랑의 이질적 작용이 분리된 자를 재결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현상유지시키는 데 급급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루터가 간과한 것이다. 루터는 사랑의 이질적 작용에 관한 이론의 왜곡된 면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문제시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종종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힘의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Tillich, 1980: 64-65).

미치게 되었다.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되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로마서 8:20-22). 물리학적으로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entropy) 증가법칙은 피조세계의 부패하는 속성을 표현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양승훈, 1999: 89). 엔트로피는 에너지(energy)라는 말과 변환(transformation)이라는 말을 가지고 만든 말로 열역학적으로는 계(system)의 에너지 무용도(無用度)를 나타내며 통계역학적으로는 계의 무질서도(無秩序度)를 나타낸다. 이 법칙에 따르면 고립된 시스템의 엔트로피, 즉 계의 에너지 무용도나 무질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한다. 유용한 에너지는 점차 감소하고 쓸모없는 에너지만 증가한다. 우주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지만(열역학 제1법칙 또는 에너지보존의 법칙) 에너지의 흐름은 일정한 방향이 있는데 점차 무용한 에너지 쪽으로, 점차 무질서한 쪽으로 변해 간다는 것이다. 이 법칙에 의하면 우주는 점차 낡고 퇴락하게 되며 결국 열적 죽음(Thermal Death), 즉 완전한 무질서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양승훈, 1999: 91).

한편 사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관한 논의도 개진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연구대상은 무엇이든 정량화, 측정, 실험에 의한 확인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태도에는 과학적 접근방법을 크기와 무게를 가진 유형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과학은 이미 측정할 수 없고 정량화할 수 없으며 감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까지도 연구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시적인 것이든 비가시적인 것이든 다양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라고 보는 과학적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물리학적으로는 유형적 물질은 단지 한 가지 형태의 에너지일 뿐이라고 하는 관념이 수용되고 있다. 아인쉬타인의 상대성원리는 질량이란 그저 다른 형태의 에너지임을 말해준다.[11] 양자물리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

생명의 본질과 의미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유사한 결론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기운(auras)으로부터 에너지 시스템, 사고・감정・의지의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너지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건강과 관련된 다수의 잘 열려진 훈련방법들도 역시 에너지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Atwell, 2004: 607-08). 예를 들면

11) U.S. 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Science, What is Physics?, http://www.science.doe.gov/Sub/ Newsroom/News_Releases/DOE-SC/2005/What_is_Physics.htm.(검색일 2011.10.25)

침술은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계의 작동을 통해서 신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마사지 치료도 침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차원과 에너지 차원의 양자에서 접근한다. 이들 모든 분야는 자연상태에서 우주에 에너지가 넘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물과 관련된 실험에 심혈을 기울인 과학자가 있다. 그는 과학계와 정신계를 융합하여,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사랑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형태의 에너지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바로 에모토 마사루인데, 성인 몸의 70% 가량이 물로 구성되어 있음에 착안하여 물에 관한 실험을 했다. 그는 물을 연구하면 사람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물에게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음악을 들려주었다. 이러한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 물의 결정체(water crystals)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물의 결정체들이 긍정적인 말과 음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부정적인 말과 헤비메탈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나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는 사랑과 감사(love and gratitude)의 표현에 반응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그리하여 "사랑은 상대에게 감동을 준다. 그러면 상대는 그것에 감사해서 보답을 하는 것이다. 사랑을 준 사람에게 보답을 하는, 이 오고 가는 양자의 보완관계에 의해 대자연과 우주는 성립하고 있다"고 말한다(에모토 마사루, 2004: 91). 그는 나아가서 "존재는 진동이다. 우주 전체는 진동하고 있고, 제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발하며 독특한 파동을 가진다. 나의 이야기는 이것을 전제로 한다. 오랜 세월 물을 연구한 결과 나는 그것이 우주의 근본원리임을 알았다. 지금 양자역학 등의 과학세계에서는 물질이란 진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에모토 마사루, 2004: 88).[12]

많은 전문가들은 모든 것이 에너지라고 하는 원칙 이외에도, 모든 인류가 강력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인간의 상호연대성은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우리 모두는 모두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12) 국내의 한 공중파 방송에서도 유사한 실험결과를 방영한 적이 있다. 여러 명의 PD들에게 쌀밥 두 그릇씩을 주어서, 매일 세 차례씩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각각의 쌀밥에 해 주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수거해서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말을 들은 밥은 하나같이 흰색의 색상을 유지했지만,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밥은 하나같이 검정색의 곰팡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모두 하나의 영적(spiritual) 공동체의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개별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 이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개체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그러한 잘못된 신념이 사라지면, 오로지 하나의 영혼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도 한다. 천둥·비를 관장하는 베다(Veda)교의 으뜸 신인 인드라(Indra)의 거미줄 또는 인드라의 망에 관한 불교 전통신화는 그 이상의 인간 상호연대성을 주장한다. 이 신화적 망의 각각의 매듭은 보석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보석들은 서로 반사한다는 것이다. 그 그물망 안에 있는 어떤 보석이 손상되면, 다른 모든 보석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의 상호연대성 및 상호의존성을 말하는 것이다.[13]

이 상호연대성은 일종의 우주적 수프로 불리기도 한다. 수프를 담는 그릇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일부라는 유추를 이용하면, 그 수프의 일부가 부패하면 그릇 속의 내용물 전체가 부패하게 되는 이치이다. 예를 들면, 바다가재 크림수프의 경우 만약 바다가재나 크림이 신선하지 않다면, 수프 전체가 부패하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모든 인간 영혼의 상호연대성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 우주적 혼합체에 증오와 폭력이 존재하면 모든 인류가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상호연대성의 개념은 증오의 치유가 더 많은 증오 또는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설명해준다. 우리 모두가 부분을 이루고 있는 유일한 에너지계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한 양질의 애정이 깃들인 것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빛과 어둠의 개념에 대해서도 유사하다. 어두운 방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류가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 조화, 아름다움, 미덕, 지혜, 아량, 평화, 자신, 감사 등과 같은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이다.

우주가 에너지로 충만한 상태에 있고 우주만물은 모두 에너지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전제하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있게 된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을 법의 배후에 존재하는 추진력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사랑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 관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다. 비록 이러한 광범하고 다양한 자료들은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13) Indra's Net, The Indra's Net: What Is It?, http://www.heartspace.org/misc/IndraNet.html.(검색일 2011.10.25)

는 하지만, 사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사랑이 유일한 진정한 힘이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이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사랑은 감정 이상이며, 영적인 힘이다. 사랑이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모든 다양한 진동수의 에너지 중에서 최고의 에너지라는 것이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에너지 또는 에너지의 스펙트럼이다. 모든 것이 에너지이며 사랑은 모든 에너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사랑을 신적인 힘이라고 하고, 혹자는 영혼의 에너지라고 한다. 그들은 모두 사랑이 본래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에너지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에모토의 물 실험은 사랑이 최고의 진동 또는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진동임을 확인해 준다.[14] 그래서 그는 “상대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것에 에너지를 주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다. 모든 것을 사랑하고 사이 좋게 조정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방식이고, 이 세상에서 신의 대리인으로서 인간이 가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나 다른 사물들 모두 혼자서는 진동을 울리지 못한다. 이 세상 모든 것에 사랑을 아낌없이 계속 나누어주자”고 말한다(에모토 마사루, 2004: 92). 법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추동력이 되는 것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은 인류의 개선 및 회복을 위해 이용되는 힘이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할 것이고, 돌봄과 동정을 베풀도록 이끌 것이다. 마틴 부버가 ‘나’가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는 ‘너’에 대한 관심에 있다는 말을 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III. 법과 사랑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랑이 인간 영혼을 어루만지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가슴을 진동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 모두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용한다면, 이 지식은 일상생활, 특히 법률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14) The True Nature of Love - Love as a Vibrational Frequency, http://joy2meu.com/Love2.html. (검색일 2011.10.25) 사랑을 진동(vibration)으로 설명함.

수 있다. 사람의 생각의 근원을 정신적 쓰레기의 바다와 다른 한편으로 사랑의 바다로 구분한다면, 사랑의 바다에서는 사람들은 냉담하고, 무정하고, 지식적인 상태에 있게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은 이해력이 뛰어나고, 자비롭고, 애정이 깊고, 차분한 위엄이 있고, 평온하고, 자신감 있고, 감사하고, 화목하게 된다. 사랑은 용서, 동정, 관대, 친절, 배려 등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정신적 쓰레기로 가득찬 바다에서는 그 반대의 것들이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사랑의 개념은 언제나 행동만이 아니라, 존재와도 관련되어 있다.[15] 개방적이고, 자비롭고, 용서하는 마음을 유지하면 사랑의 에너지로 연결된다. 사랑의 에너지에 연결된다면 자연스럽게 애정이 깊고 자비로운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생이 평탄한 길을 갈 때에는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Szoto, 2001: 38, 40, 45). 예를 들면, 사랑하던 배우자를 잃어버린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 중 한 사람은 그가 잃어버린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대해 분노하는 반응을 할 수 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엄청난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하던 사람과 나누었던 시간과 그들이 나누었던 사랑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전자와 후자 모두가 세상을 떠난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길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후자는 사랑했던 사람이 없는 삶을 전자와는 아주 다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후자는 바로 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사랑의 에너지에 연결되어 머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친구들과 가족들은 동정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감정을 이입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동정심은 죽어가는 친구의 고통을 바라보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먼저 나의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나 자신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는 나와 동일한 요구를 가지고 있고, 행복해지고 싶고 고통을 피하고 싶은 동일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고독을 가지고 있고, 미지에 대하여 동일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슬픔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만약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나의 가슴이 그 사람을 향하여 열리고 사랑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죽어가는 사람의 자리에 나 자신을 직접적으로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동정, 용서 등

15) Eric Dowsett, Loving Who Shows Up (2006). Cf. www.ericdowsett.com.(검색일 2011.10.25)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실천하는 사랑을 향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중의 하나는 그것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다. 생각이 실제로 사랑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정직한 자기반성이 요구된다.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중요한 형태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 생각과 감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양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묵상, 침묵, 산보 또는 조용히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이러한 기술들은 '신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방적이고 감수성이 있는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종종 장려되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혼의 에너지 또는 신적 에너지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다.[16]

만약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기만 하면, 필요한 경우 이것들을 관리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약 분노나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마음을 상하게 한 자에 대해 보복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도 이러한 인식을 이해, 수용, 동정, 용서, 사랑 등의 하나로 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사랑하던 배우자를 잃어서 분노에 사로잡힌 자는 다른 관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다르게 생각하고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사고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타인들의 사랑과 동정이 요구될 것이다. 실제로는 사랑의 대응방법을 발견하기가 언제나 용이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인종갈등과 문명충돌, 테러행위에 대한 종교적 정당화가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에서 인류에게 닥친 명백하고 긴급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신의 이름으로 흘린 피가 인류 역사를 더렵혀왔다. 대량살상무기와 결합한 종교적 극단주의는 지구상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우리는 예전처럼 끊임없이 서로를 증오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우리의 파괴능력이 커진 만큼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상력의 관대함도 커져야 할 것이다" (Sachs, 2002: 6).

사랑은 인간 사회 전체를 품고 있다. 인류 전체가 가시적인 세계를 넘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단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16) Agape International Spiritual Center, 3.

사람에게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거주지, 피부색,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기타 특별상황 등을 불문하고 적용될 것이다. 즉, 기본적 인권과 '보편적인 법체계'(universal jurisprudence) 관념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Ward, 2001: 946). '우리 대 그들' 이라고 하는 대결적 구조보다는, 인종과 무관하게, 가난한 자든 부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기타 여하한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든, 하나의 인간공동체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Chiesa, 2008: 221), 차이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관용적이고 동정심을 가진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사랑의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이 최고의 진동이며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법에는 이웃사랑과 자기사랑 모두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시적인 영역을 뛰어 넘는 영적 개념과 법을 융합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법적인 시나리오를 엮어서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IV. 법, 사랑, 그리고 제도

역사상 유명하다고 하는 법조인들의 흉상에서 자애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가지고 심각하게 씨름하거나, 민사법정에서 개인간의 날카로운 이익충돌의 문제를 논의하고 판결을 선언하는 법조인에게 신중하고도 장중한 태도가 요구되며, 그러한 생활이 습관화된 법조인들의 외형이 냉정하고 딱딱한 모습으로 굳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조문의 적용대상은 혈관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실존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면 법은 어린아이 손에 쥐어진 칼이 되어,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깊은 상처를 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한 철, 2009: 284-285). 법조인은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예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라고 지적하셨다. 오늘날 우리 실정법의 강령 또한 사랑임을 이해하고, 사랑의 정신이 법에 담겨져야 한다. 이는 이웃의 행복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이웃의 건강보호와 행복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같은 분야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1. 이웃의 건강한 삶

건강을 잃은 주변 사람들의 고통스런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존재가 사람이다. 의료보험 또는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적기에 그리고 양질의 건강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그 결과 그들은 대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덜 건강한 상태에 있게 된다. 건강보험 비가입이 실제 개인건강에 상관이 없다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우리 사회가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비가입자의 문제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건강관리정책은 무관심보다는 모든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관심과 배려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비가입자들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에 비해 덜 건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가입자들은 일상적인 정기건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그들은 가입자들이 의료수단을 찾는 경우보다 더 병이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진료를 위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한다.[17] 물론 이 점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개인이 응급실 진료를 찾을 만큼 건강이 악화되기까지는 병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이 진단미확정의 암을 가지고 응급실을 찾기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린다면, 그 암은 악화되어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보험가입자는 초기에 치료가 가능한 시점에서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고통이 사라짐으로써 비용절약을 기대하면서 고통을 참으려고 하는 심장발작 피해자는 고통을 면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을 것이다. 비보험가입자들은 처방전이 없이는 지속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약물치료를 요하는 당뇨병 및 고혈압과 같은 만성적인 질병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사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 사회가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역량이 있는가 여부도 역시 검토

17) 42 U.S.C. § 1395dd (2006).

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들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 전체에 대해 보험을 제공해왔다. 예를 들면, 노인의료보장제도(Medicare)를 통해서 대부분의 노인들을 위한 건강진료를 제공하고 있다(Forman, 2006: 139).[18] 이 제도는 퇴역군인들을 보호한다.[19] 또한 대부분의 가난한 자들은 Medicaid(65세 미만의 저소득자・신체 장애자 의료보조제도)를 통해서 보호된다.[20] Medicaid의 혜택을 이용하기에는 소득기준을 상회하는 차상위 저소득 수준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국민들에 대해 건강진료 보험을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21]

건강보험 시스템에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부문을 참여시키면 일반적으로 관리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며, 효과적인 건강진료의 제공보다는 수익성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사실상 민간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수준은 근래 감소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부담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Medicare와 같이 정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건강진료를 적은 비용으로도 성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민영보험회사들의 과도한 관리비용을 보상하거나 약품 및 의료장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보험가입자들을 위한 비용부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건강진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정도의 부담은 아닐 것이다. 결국 보편적 건강 커버리지를 제공할 역량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건강보험 커버리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거나 결과적으로 더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그 이상을 요구한다. 사회가 비보험가입자들에 대해 사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자는 없지만, 사회의 건강진료정책은 그들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하고 있다(Strelnick, 2005: 63). 무관심은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 사랑과 동정심을 선택하면 비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고 그들이 직면하는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건강진료에 접근하기에 부족한 점에 대한 그들의 어려움에 동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에너지를 중시하는 입법자들은 우리는 한 인간 가족임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헬스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에 따라 행

18) 42 U.S.C. § 1395c (2000)
19)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http://www1.va.gov/health.(검색일 2011.10.25)
20) 42 U.S.C. § 1396 (2000).
21) 25 U.S.C. § 1603 et. seq. (2000); 30 U.S.C. § 901 (2000).

동할 것이다. 그들은 신중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관대하게 그것을 제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당리당략적 판단이 끼어들 여지는 없을 것이다. 돈도 정책도 중심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입법자들은 건강보험이 없는 국민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스케일의 노력이 수행될 수 있다. 이제 유일한 문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랑은 모두를 위해 건강진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개선된 건강진료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한다.

2. 이웃의 환경에 대한 책임

이웃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면, 전 지구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은 환경책임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는 비교적 근래에 우리 관심의 관심사가 된 것이기는 하지만, 환경법적인 논의는 이미 1800년대 후반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Kennedy, Jr., 2005: 892).[22] 그러나 대기정화법, 수질오염방지법 등과 같은 대부분의 주요 환경법령들은 1970년대에 마련되기 시작되었다(Percival, 2007: 6). 이러한 제정법과 몇몇 그에 상응하는 환경적인 성공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Pierrehumbert, 2006: 574), 특히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 주범 중의 하나는 대기 중에 방출된 이산화탄소이며, 이로써 온실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은 단일의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이며 인류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의 30% 가량을 지구 대기 중에 배출한다(Aminzadeh, 2007: 232).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주장에 대해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롬보르, 2003: 8), 오늘날 인류 사회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극심한 기상이변, 인도 및 미국의 홍수, 빙하의 융해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경험하고 있다(Peay, 2007: 478).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인간 활동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구온난화가 전문가

22) 미국 내의 수로를 오염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1888년의 Rivers and Harbors Act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들이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Wood, 2007: 577). 과학자들은 이러한 긴급성을 일깨우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2007년 1월 하버드 의과대학의 '건강 및 지구환경 센터'는 전국 복음주의 교계 지도자들과 회의를 열기 위해 최고 기후과학자들을 소집했다. 그들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긴급 액션요청'(Urgent Call to Action)을 전달했다. 사상 최초로 과학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국가 모든 부문의 리더십이 너무 늦기 전에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만약 늦어진다면 일상적인 사업이 더 이상 하루도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문제는 이제 매우 긴급한 문제가 되었다. 지난 수 십년 동안 환경법이 환경정화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수질정화법, 대기정화법, 기타 환경법 등에 규제당국의 재량 여지가 너무 많아서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오염행위를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23]

지구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에 대한 저항은 자동차 마일리지 기준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EU, 중국 등은 비교적 엄격한 가스 마일리지 규칙을 가지고 있다. 미국 자동차업자들은 미국 차들이 중국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기 어려울 수 있다. 연료 대비 효율성이 인정되는 자동차 기술은 분명히 존재한다.[24] 지금은 기업에게 무책임한 행위의 방식을 허용할 때가 아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와 싸우기 위한 미국의 진지한 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의정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다(Galizzi, 2006: 102-03). 이것은 참여국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 배출량 감축조치를 요구한다. 사실상 모든 선진국과 많은 개도국들은 이 의정서에 서명했다.

인류는 온실가스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대부분의 것을 알고 있다. 단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유익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선두 기업인 토요타와 혼다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증가시키

23)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모든 환경법들의 목적은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법 역시 그 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바로 그 오염 또는 토지손해를 허용하는 권한을 관련 정부기관에게 기관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Wood, 2007: 593-94).

24) National Resource Defense Counsel, Energy Facts (Jan. 2007), http://www.nrdc.org/legislation/factsheets/leg_07011701A.pdf.(검색일 2011.10.25)

고 있는 한편, 포드와 GM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인류가 환경정화에 관한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고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때,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고, 지구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방치하는 것은 무관심과 무책임의 표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랑과 조화가 될 수 없다. 사랑은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한 동정심을 품는 것이다. 극심한 기후사태의 희생자들에 대한 감정이입을 요구한다. 나아가서 그것은 장래의 극심한 기후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가능한 액션을 요구한다.

따라서 만약 사랑과 동정의 측면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한다면, 지구온난화가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큰 혼란, 사망, 재해 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과학적 컨센서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이 사라지는 상황이 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법령을 충실하게 집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법률은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는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세금부과 및 소비능력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격려할 수 있다. 교육 역시도 중요하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 중의 하나는 가스 마일리지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아직도 여전히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자동차가 도로 상에 있기는 하지만, 연료비용의 증가는 많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장차 더 작고, 더 연료 대비 효율적인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은 식료품 가게에 갈 때 가능한 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쇼핑백을 가져가고,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를 구매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등과 같은 일을 하도록 장려된다.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기구와 기타 상품들은 라벨이 부착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최고의 환경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비교적 소형의 하이브리드 및 기타 연료효율적인 자동차들의 경우와 같이, LED 전구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법은 세금공제나 보조금지급에 의해 이러한 친환경적인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대규모의 기업들에 대해 광범한 환경파괴를 가

져오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편법이 허용된다면, 지구 기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환경이익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규제는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매몰되면 진리의 생명력은 화석과 같이 변해버리고 화석화된 진리는 사람이 숨을 쉬기도 어렵게 만드는 굴레가 될 수 있다. 예수께 책망을 받았던 당대의 지도자들은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본질을 외면하고 진리를 형식화시키는 일에 골몰했다. 끝없이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게 되면 예수께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그 책망이 우리 시대의 법과 법률전문가들을 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된 이래로 법과 법률전문가들은 사회의 병리현상을 바로 잡고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고 유지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다. 오늘날의 법에서 기초가 되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개념도 결코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공동체가 병들었는데 개인만 건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웃들 다수가 불행한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이런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요, 졸지에 혼란의 쓰나미가 덮쳐 올 수도 있는 사회이다. 주변의 이웃들은 불행한데도 자신만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건강한 공동체를 전제로 각각의 구성원의 행복과 평안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은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근원적인 책무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기본개념으로 하는 법은 개인 이익의 실현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랑, 즉 이웃 사랑의 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의 자구에만 매달려 법의 본질인 사랑(마태복음 22:37-40)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양산하는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한다.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사랑에 기반한 법에 대한 접근방식은 정의사회로 인도하는 로드 맵을 제공할 것이다. 사랑으로 비롯된 법을 만드는 열쇄가 되는 것은 사랑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방적이고 동정심을 가진 관대한 마음이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심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우리 이웃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에 무관심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동정은 많은 이웃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위험에 내 몰리는 상황을 방치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이웃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명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가 본래의 근원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적용되고 집행되는 경우를 보기 어렵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며 경우에 따라 구성원들로부터 외면당하여 사문화되는 법조문도 적지 않다. 법과 제도가 원래의 의도를 잃지 않고 집행되는 것도 사랑에 기반한 법에 대한 접근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양승훈 (1999).『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한철 (2009). “법률가의 모델로서의 ‘고용된 총잡이’를 넘어서.” 『신앙과 학문』. 14(3). 283-310.

Allegretti, Joseph (1996). *Christian Faith and Legal Practice*. 심동섭・전재중 역 (1999).『법조인의 소명』. 서울: IVP.

Aminzadeh, Sara C. (2007). A Moral Imperative: The Human Rights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30 *Hastings Int'l & Comp. L. Rev.* 231. 231-254.

Atwell, Barbara L. (2004). Mainstreaming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the Face of Uncertainty. 72 *UMKC. L. Rev.* 593. 593-608.

Blomquist, Robert F. (2003). Law and Spirituality: Some First Thoughts on an Emerging Relation. 71 *UMKC L. Rev*. 583. 583-599.

Chiesa, Luis E. (2008). The American Experience with a Criminal Law for Outsiders: From the Alien Friends Act to Guantánamo Bay. *Rutgers J.L. & Pub. Pol.'y.* 122-148.

Forman, Jonathan Barry (2006). Making Universal Health Care Work. 19 *St. Thomas L. Rev.* 137. 137-157.

Galizzi, Paolo (2006). Introduction to Reducing Greenhouse Gases: State Initiatives and Market-Based Solutions. 17 *Fordham Envtl. L. Rev.* 101. 101-118.

Greenlee, Mark B. (1995-1996). “Echoes of the Love Command in the Halls of Justice.” *Journals of Law and Religion.* 12. 225-298.

Lomborg, Bjorn (2001). *The Skeptical Environmentalist*. 홍옥희・김승욱 역 (2003).『회의적 환경주의자』. 서울: 에코라이프.

Masaru, Emoto (2002). *Water Knows The Answers: The hidden messages in water crystals*. 홍성민 역 (2008).『물은 답을 알고 있다』. 서울: 더난출판사.

Masaru, Emoto (2003). *Water Wants Love*. 김현희 역(2004).『물은 사랑을 원한다』. 서울: 대산출판사.

Porter, J. M.(ed) (1981). *Luther Selected Political Writings.* 홍치모 역 (1985).『루터의 정치사상』. 서울: 컨콜디아사.

Peay, Sara A. (2007). Joining the Asia-Pacific Partnership: The Environmentally Sound Decision?. 18 *Colo. J. Int'l Envt'l. L. & Pol'y* 477. 477-492.

Percival, Robert V. (2007). Environmental Law in the Twenty-First Century. 25 *Va. Envtl. L.J.* 1. 1-23.

Pierrehumbert, R. T. (2006). Climate Change: A Catastrophe in Slow Motion. 6 *Chi. J. Int'l L.* 573. 573-602.

Sachs, Jonathan (2002). *Dignity of Diferrences.* 임재서 역 (2007).『차이의 존중』. 서울: 말글빛냄.

Savoy, Paul (1985). The Spiritual Nature of Equality: Natural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Law. 28 *How. L.J.* 809. 809-815.

Schutt, Michael P. (2007). *Redeeming Law*. 정옥배 역.『다시 찾은 법률가의 소명』. 서울: IVP.
Strelnick, A. H. (2005). Increasing Access to Health Care and Reducing Minority Health Disparities: A Brief History and the Impact of Community Health Centers. 8 *N. Y .U. J. Legis. & Pub. Pol'y.* 63. 63-78.
Szoto, Mary C. (2001). Lawyers as Hired Doves: Lessons from the Sermon on the Mount. 31 *Cumb. L. Rev.* 27. 27-43.
Tillich, Paul (1953). *Love, Power, and Justice.* 남정길 (역)(1980).『사랑・힘・정의』. 서울: 전망사.
Ward, Ian (2001). Universal Jurisprudence and the Case for Legal Humanism. 38 *Alta. L. Rev.* 941. 941-956.
Wood, Mary Christina (2007). Nature's Trust: A Legal, Political and Moral Frame for Global Warming. 34 *B.C. Envtl. Aff. L. Rev*. 577. 577-592.
Agape International Spiritual Center, About Agape, http://www.agapelive.com/index.php?anchor =aboutagape.
Eric Dowsett, Loving Who Shows Up (2006). Cf. www.ericdowsett.com.
Indra's Net, The Indra's Net: What Is It?, http://www.heartspace.org/ misc/IndraNet.html.
National Resource Defense Counsel, Energy Facts (Jan. 2007), http://www.nrdc.org/legislation/factsheets/leg_07011701A.pdf.
The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Philosophy of Love, http://www.iep.utm.du/l/love. htm.
The True Nature of Love - Love as a Vibrational Frequency, http://joy2meu.om/Love2.html.
U.S. 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Science, What is Physics?, http://www.science.doe.gov/ Sub/Newsroom/News_Releases/DOE-SC/2005/What_is_Physics.htm.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http://www1.va.gov/health.

ABSTRACT

Law, Love, and Society

Cheol Han(Hannam University)

Jesus said.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give a tenth of your spices--mint, dill and cummin. But you have neglected the more important matters of the law--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You should have practiced the latter, without neglecting the former. You blind guides! You strain out a gnat but swallow a camel.”(Mt.23:23-24) And He sai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Mt.23:37-40) According to His teaching,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is Love. It's not different in secular law.

Love is the very foundation upon which laws should be based.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serve justice; and Love can serve as a road map to get us there. It is a powerful force that can generate laws consistent with the goals of justice and equality. Focusing on reason and analysis to the exclusion of Love results in laws that are not always just or fair. There is a need for a broader, more synoptic linkage of law with love. The connection between human-crafted law and inspirational forces that should challenge and, possibly, even transform or transcend law.” Viewing the law as a “derivative discipline,” a discipline derived from Love, will enhance justice throughout the legal landscape. The law is a tool for human justice. A Love-based approach to the law can provide a road map to lead us toward justice. We should not neglect love, the core value of law. Love and Law are inherent in many of the questions lawyers grapple with.

Key Words: love, law, energy, justice, foundation